

대학생의 노인 이미지, 지식과 고정관념 및 인식*

권명순** · 노기영*** · 장지혜****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과학의 눈부신 발달과 함께 보건환경과 의학의 발달, 영양상태의 향상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장수'에 대한 인간의 소망을 성취시켜 주었다. '2013 세계보건통계(2013 World Health Statistics [WHS])' 결과, 194개 회원국 전체 평균 기대수명은 70세이며(WHO, 2013),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80년 65.7세에서 1990년 72세를 넘어 2013년 81세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가운데 17위를 차지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 3.1%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에는 11.4%에 이르렀고, 2050년에는 37.4%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1). 지금 우리는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는가보다는 늘어난 기대수명만큼의 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

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이나 일본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고령화의 진행 속도와 함께 해야 할 우리 사회의 가치관의 변화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Kim, 2006). 근대사회로의 급속한 변화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노화에 대한 지식의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고(Palmore, 1998), 현재 노인의 삶은 고령화 비율에 따른 차이보다는 지역의 산업과 문화적 특성에 따른 차이로 인해 생활상이 구별되고, 계층화가 심해지고 있다(Lee, Jung, Oh, & Nam, 2012). 사회 구성원이 가지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적 차이는 노인 사회의 계층화를 심화시킬 수 있어 각종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노인복지나 보장제도 강화와 더불어 노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Sin, 2011). 따라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노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곧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3A2033480).

** 한림대학교 간호학부 부교수

***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 한림대학교 간호대학원 석사과정생(교신저자 E-mail: gogh0049@gmail.com)

투고일: 2013년 10월 3일 심사외일: 2013년 11월 2일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30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Jang, Ji hye

Graduate school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1 Hallymdaehak-gil, Chuncheon, Gangwon-do, 200-702 Korea

Tel: 82-33-248-1421 Fax: 82-33-248-1415 E-mail: gogh0049@gmail.com

사회 구성원으로써 대학생은 성인으로서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통해 직접적인 사회 참여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형성된 노인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에 따라 미래에 노인 복지를 위해 투입할 자원의 양과 서비스의 종류나 질은 달라질 수 있다(Sung, 1995). 현대사회는 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가치관을 변화시켰고 자녀의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켜 성인 손·자녀, 특히 대학생들은 더 이상 노인부양이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An, 2004). 세대 간 단절이 심각해져 과거에 비해 노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편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Park & Yi, 2002) 가까운 미래에 노인 부양을 책임져야 할 대학생들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는 향후 노인 문제 해결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Kim, 2006).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급증과 더불어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서 수용되었던 다양한 노인 문제가 외부 환경인 사회적 부담으로 확대되면서 간호 서비스의 주대상자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Lee & Kang, 2006). 이러한 간호 서비스 현장에서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노인을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와 돌봄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Choi & Park, 2009; Han, 2010).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간호사나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Boyd & Scarborough, 2012; Kim, Yang, Oh, & Kim, 2002; Park, 2004). 간호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미래에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노인 환자를 대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노인 관련 업무에 대한 기피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Gomez, Young, & Gomez, 1991).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간호교육 과정에 노인간호학 과목의 개설과 함께 관련 실습 교육을 통해 노화와 노인에 대한 간호학과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간호학과 학생들에 비해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Kim, Yang, Oh, & Kim, 2002).

노인에 대한 인식은 노인에 대한 이미지, 태도, 인지 등의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Park,

2004), 노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없애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Kim, et al., 2002; Song, 2004).

또한 노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연령, 지역, 노인이 함께 동거하는 가족구조, 동거 경험, 노인과의 접촉 경험, 노인에 대한 봉사 경험,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 등이 있다(Jansen & Morse, 2004; Lee, 2000; Park & Yi, 2002). 노인과의 의미 있는 접촉을 통해 더 자주 상호작용하는 대학생들은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Boyd & Scarborough, 2012, Kim, et al., 2002), 노인 관련 봉사 또는 돌봄 경험은 노인에 대한 태도 뿐 만 아니라 노인 관련 교육에 대한 흥미에도 영향을 미친다(Fitzgerald, Wray, Halter, Williams, & Supiano, 2003). 특히 노인과의 긍정적인 접촉을 가진 횟수가 노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onzales, Morrow-Howell, & Gilbert,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에 노인을 부양할 세대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장래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간호학과 비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의 인식을 비교하여 향후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노인 관련 교육 과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노인 이미지, 지식과 고정관념 및 인식을 파악하여 간호학과와 비간호학과 학생의 차이를 비교하고, 각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과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특성별 노인 이미지, 지식과 고정관념 및 인식을 파악한다.
- 노인 이미지, 지식과 고정관념 및 인식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와 비간호학과 학생 간의 노인 이미지, 지식과 고정관념 및 인식을 비교하고, 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과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일개 대학교의 간호학과와 비간호학과 학생 각각 200명씩 편의표집 하였다. 표본 수 선정을 위해 G^*power 3.1.2.을 활용하여 중간정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일 때 표본 수는 270명으로 산정되었고, 탈락자를 감안하여 총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1) 노인 이미지

노인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 Sanders, Montgomery, Pittman과 Balkwell (1984)이 개발한 것을 번역하고 수정·보완하여 Park (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Park (2004)은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3개의 분석유목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도구는 각 분석유목에 해당되는 형용사 28개를 선정하고, 양극단에 반대 형용사인 대응형용사를 두고 응답하게 하는 의미분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ing)를 사용하여 부정적인 의미의 형용사에서 긍정적인 의미의 형용사까지 1~5점을 부여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이미지는 '느린-바쁜, 정적인-동적인, 아픈-건강한, 무기력한-활력적인, 약한-강한, 지저분한-깨끗한, 게으른-부지런한, 초라한-우아한'의 8문항, 심리적 이미지는 '의존적인-독립적인, 비관적인-낙관적인, 어리석은-현명한, 무식한-유식한, 엄격한-온화한, 이기적인-희생적인, 불안정한-안정적인, 내성적인-외향적인, 고지식한-융통성 있는, 수

동적인-능동적인'의 10문항, 사회적 이미지는 '소외된-수용된, 한가한-바쁜, 비생산적인-생산적인, 불량한-모범적인, 주변적인-중심의, 비협동적인-협동적인, 무능력한-유능한, 쓸모없는-유용한, 가난한-부유한, 사치스러운-검소한'의 10문항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신체적 이미지 .680, 심리적 이미지 .758, 사회적 이미지 .62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이미지 .750, 심리적 이미지 .770, 사회적 이미지 .705로 나타났으며, 노인 이미지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855였다.

2)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지식 측정을 위해 Palmore (1998)가 개발한 True-False version의 Facts On Aging Quiz Part I (FAQ I)을 Song (2004)이 연구 당시 상황에 맞게 구성,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기존에 총 25문항인 도구를 노인 관련 실무전문가 2명과 이론전문가 3명의 자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맞도록 문항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2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각 문항을 특성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체·생리적 영역(15문항)과 가족·사회적 영역(8문항)으로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노화와 관련된 신체적 변화와 노인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편견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각 문항에 대해 맞는지 또는 틀린지를 표시하게 하였다. 문항별로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3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18이었다.

3)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인식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인식 측정을 위해 Park (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고정관념과 인식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노인의 적응 및 대인관계, 가족관계, 은퇴 및 경제적 능력에서의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

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문항 중 '노인과 같이 지내는 것이 힘들다. 노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이다. 노인은 전통이나 관습을 중히 여긴다', '노인은 지식과 손주들이 순종하고 존경해주기를 바란다. 노인은 손주를 귀여워해서 버릇없게 만든다', '노인은 보통 자식들에 의해 경제적으로 부양받고 있다. 노인은 그 사회의 경제적인 면에서 부담스러운 존재이다' 등의 부정적인 문항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인식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적응 및 대인관계 영역 .708, 가족관계 영역 .404, 은퇴 및 경제 영역 .600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05$ 였다.

4.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H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서 연구 목적, 방법론, 피험자 권리보장 및 설문지 구성 전반에 대한 심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승인번호: HIRB-2013-025)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함께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익명성 보장 및 설문 조사 중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음과 설문지 작성에는 약 15분이 소요됨을 알렸다. 구두 설명 후 동의하는 경우 서명을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 이미지, 지식과 고정관념 및 인식에 대해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고, 간호학과와 비간호학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χ^2 test를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 이미지, 지식과 고정관념 및 인식은 학과 간 차이가 있었던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t-test, ANOVA 분석을 이용하였고, 사후검증은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수된 373개의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3부를 제외한 370부를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20~28세로 평균 연령은 21.78 (± 1.528)세이며, 여학생 77%(285명), 남학생 23.0%(85명)였다. 학과별로 간호학과 54.9%(203명), 비간호학과 45.1%(167명)였다. 학년별로 1학년 21.9%, 2학년 35.1%, 3학년 24.3%, 4학년 18.6%를 차지하였고, 지역별로 대도시 42.4%, 중소도시 50.5%, 농어촌지역 7.0%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52.2%, 기독교 26.5%였고, 천주교와 불교 순이었다.

노인과의 동거 경험은 있다 56.9%, 없다 41.1%, 노인과 만나는 횟수는 연 5회 이하 36.5%, 월 1회 이상 27.8%, 주 1회 이상 19.2%로 나타났다. 노인 관련 봉사 경험이 있다 59.4%였고, 노인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 47.4%, 그저 그렇다 34.7%, 관심 없다 17.9%를 차지하였다. 미래에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와의 동거를 '원하지 않는다' 73.6%, 노후에 부양 시설을 이용할 계획에 대해서는 '시설이 쾌적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이다' 51.6%, '아플 경우에만 이용하겠다' 23.4%, '자녀와 함께 살 수 없을 경우에만 이용하겠다' 12.9%, '시설 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6.9%, '만드시 이용하겠다' 5.2% 순이었다. 노후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45.9%, 가족 및 이웃과의 관계 32.7%, 돈 17.3%, 종교 및 사회활동 참여 4.1%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2. 특성별 노인 이미지, 지식과 고정관념 및 인식의 차이

1) 노인 이미지

전체 대상자의 노인 이미지에 대한 문항별 평균 점수는 평균 2.96(± 0.376)점이었고, 영역별로 신체적 이미지 2.71(± 0.501)점, 심리적 이미지 3.16(± 0.495)점, 사회적 이미지 3.02(± 0.400)점으로, 세 영역 중 심리적 이미지가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학과에 따라 전체 평균은 간호학도가 조금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하부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70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ursing		Others		χ ² or t	p
		N or M(SD)	%	N or M(SD)	%	N or M(SD)	%		
Age		21.78(±1.528)		21.73(±1.548)		21.84(±1.506)		-0.722	.471
Gender	Male	85	23.0	24	6.5	61	16.5	31.601	.000
	Female	285	77.0	179	48.4	106	28.6		
Grade	1st	81	21.9	50	13.5	31	8.4	27.720	.000
	2nd	130	35.1	49	13.2	81	21.9		
	3rd	90	24.3	53	14.3	37	10.0		
	4th	69	18.6	51	12.8	18	4.9		
Place of Origin	Big Cities	157	42.4	97	26.2	60	16.2	5.937	.051
	Medium-Sized Cities	187	50.5	95	25.7	92	24.9		
Religion	Rural Areas	26	7.0	11	3.0	15	4.1	12.261	.016
	Christian	98	26.5	57	15.4	41	11.1		
	Catholic	46	12.4	35	9.5	11	3.0		
	Buddhist	30	8.1	14	3.8	16	4.3		
	Other	3	0.8	2	0.5	1	0.3		
	No religion	193	52.2	95	25.7	98	26.5		
Cohabitation with the elderly	Experienced	205	58.1	109	30.9	84	27.2	0.446	.518
	Not Experienced	148	41.9	96	27.2	64	18.1		
Contact frequency with the elderly	More than once a week	71	19.2	38	12.3	33	10.7	0.534	.766
	More than once a month	103	27.8	60	19.4	43	13.9		
	Less than 5 times a year	135	36.5	79	25.6	56	18.1		
Experience of volunteer work	Experienced	217	60.3	128	35.6	89	24.7	3.507	.061
	Not experienced	143	39.7	71	19.4	75	20.3		
Interest in the elderly issues	Not interested	65	17.9	34	9.4	31	8.5	2.618	.270
	Somewhat interested	126	34.7	76	20.9	50	13.8		
	Interested	172	47.4	88	24.2	84	23.1		
Wish for cohabitation	Yes	96	26.4	50	13.7	46	12.6	0.519	.476
	No	151	41.5	117	32.1	268	73.6		
Use of supporting facilities for the elderly	Certainly	19	5.2	12	3.3	7	1.9	11.723	.020
	Occasionally	47	12.9	21	5.8	26	7.1		
	Only in sick	85	23.4	41	11.3	44	12.1		
	On the condition	188	51.6	117	32.1	71	19.5		
Most important things for retirement living	Never	25	6.9	9	2.5	16	4.4	1.292	.731
	Health	167	45.9	91	25.0	76	20.9		
	Money	63	17.3	38	10.4	25	6.9		
	Human relationship	119	32.7	62	17.0	57	15.7		
Religious and social activities	Religious and social activities	15	4.1	9	2.5	6	1.6	3.507	.061
		370	100	203	54.9	167	45.1		

었으나 신체적, 사회적 영역에서 비간호학과 학생들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노인 이미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로 남성(3.05점)이 여성(2.93점)에 비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400, p=.018$).

하부영역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이미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성별($t=2.294, p=.022$)과 종교($F=2.744, p=.028$)였고, 사후검증 결과, 기독교가 무교에 비해 노인 이미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이미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특성은 없었으며, 사회적 이미지는 성별($t=2.281, p=.024$)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 노인에 대한 지식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의 총점은 평균 16.22 (± 2.356)점으로 신체·생리적 영역의 평균 점수는 10.49 (± 1.668)점, 가족·사회적 영역은 5.73(± 1.329)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학과별로 신체·생리적 영역에서는 간호학과 학생들이(10.65점) 비간호학과 학생들에(10.29점) 비해 점수가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914, p=.049$). 가족·사회적 영역은 간호학과보다(5.67점) 비간호학과 학생들이(5.79점)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 외 노인에 대한 지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F=4.161, p=.016$)와 노후에 부양 시설 이용에 대한 태도($F=3.413, p=.009$)였다. 사후검증 결과, 노인문제에 대해 관심 있는 경우가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았고, 노후에 부양 시설을 반드시 이용하겠다는 군이 다른 군에 비해 점수가 낮았다. 하부영역별로 살펴보면, 신체·생리적 영역에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성별($t=-2.100, p=.038$), 학년($F=3.851, p=.010$),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F=3.131, p=.045$)였으며, 미래 자녀와의 동거희망 여부($t=-2.426, p=.016$)였다. 사후검증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점수가 높았고, 고학년일수록 점수가 높았다. 또한 노인 문제에 관심 있는 경우와 미래에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 점수가 높았고, 노후에 부양시설을 반드시 이용하겠다는 군의 지식이

낮았다. 가족·사회적 영역에서는 노인 문제의 관심 정도($F=3.811, p=.023$)와 노후 부양시설 이용 여부($F=5.705,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노인 문제에 관심 있는 경우가 점수가 높았으며, 노후에 반드시 부양시설을 이용하겠다는 군이 다른 모든 군에 비해 지식 점수가 낮았다.

3)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인식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인식의 전체 평균은 2.92(± 0.394)점으로 비간호학과 학생들이(2.93점) 간호학과 학생들에(2.91점) 비해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330, p=.566$).

또한 학년($F=3.316, p=.020$), 노인과의 동거 경험($t=2.132, p=.034$), 봉사 경험($t=2.370, p=.018$), 노인 문제에 관심 정도($F=8.864, p<.001$)에 따라 고정관념 및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Table 2). 사후검증 결과, 1학년은 3학년, 4학년 그룹보다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인식이 긍정적이었고, 봉사 경험이 있고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경우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인 이미지, 지식과 고정관념 및 인식의 상관관계

노인 이미지, 지식과 고정관념 및 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Table 3), 노인 이미지는 지식($r=.110, p=.035$)과 고정관념 및 인식($r=.391,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노인에 관한 지식은 고정관념 및 인식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273, p<.001$).

IV.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노인 이미지, 지식과 고정관념 및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 미래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게 될 간호학과 학생과 비간호학과 학생 간의 변수들의 비교와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결과 노인과의 동거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Table 2. Images, Knowledge and Stereotypes plus Perception toward the Elderly depending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Knowledge of the elderly										Stereotypes								
		Images of the elderly					Knowledge of the elderly					Family-Social								
		Mean (SD)	F or t (p)	Mean (SD)	F or t (p)	Total F or t (p)	Mean (SD)	F or t (p)	Mean (SD)	F or t (p)	Mean (SD)	F or t (p)	Mean (SD)	F or t (p)						
Total		2.96(+0.376)		2.71(+0.501)	3.16(+0.495)	3.02(+0.400)	16.22(+2.356)	10.49(+1.668)	1.329(+5.67)	2.92(+0.394)										
Major	Nursing	2.71	0.200	2.69	0.453	3.16	0.002	3.01	0.053	16.33	0.871	10.65	3.914	5.67	0.645	2.91	0.330	.566		
	Others	2.69		2.73	(.501)	3.16	(.962)	3.02	(.817)			10.29	(.049)	5.79	(.422)	2.93				
Gender	Male	3.05	2.400	.018*	2.82	2.294	3.23	1.465	3.11	2.281*	16.08	-0.559	.577	10.14	-2.100	5.94	1.677	2.97	1.512	.133
	Female	2.93		2.68	(.022)	3.14	(.145)	2.99	(.024)	16.26				10.59	(.038)	5.66	(.096)	2.90		
Grade	1st	2.98	0.832	.477	2.76	2.110	3.18	0.231	3.02	0.281	16.20	1.530	.206	10.43	3.851	5.77	0.202	3.03 ^a	3.316	.020
	2nd	2.99		2.75	(.099)	3.17	(.875)	3.04	(.839)	15.91				10.15 ^b	(.010)	5.76	(.895)	2.91	a/b	
	3rd	2.91		2.60		3.15		2.99		16.38				10.74 ^a	a/b	5.63		2.89 ^b		
	4th	2.95		2.73		3.12		3.00		16.61				10.87 ^a		5.74		2.83 ^b		
Pace of origin	Big cities	2.97	0.049	.952	2.72	0.110	3.16	0.047	3.03	0.318	16.21	0.013	.987	10.46	0.040	5.75	0.029	2.90	1.182	.308
	Medium-sized Cities	2.96		2.70	(.896)	3.15	(.954)	3.01	(.728)	16.23				10.51	(.961)	5.72	(.971)	2.94		
	Rural areas	2.95		2.69		3.18		2.96		16.15				10.46		5.69		2.83		
Religion	Christian	3.00	1.493	.204	2.73 ^a	2.744	3.23	4.655	3.04	1.385	16.28	1.737	.141	10.48	2.232	5.80	0.954	2.90	0.748	.560
	Catholic	2.85		2.59	(.028)	3.06	(.160)	2.92	(.239)	16.67				11.04	(.065)	5.63	(.433)	2.86		
	Buddhist	2.96		2.93	a/b	3.02		2.93		16.37				10.63		5.73		2.86		
	Others	3.19		3.08		3.33		3.17		13.33				9.00		4.33		2.89		
	No religion	2.96		2.69 ^b		3.17		3.04		16.10				10.36		5.74		2.95		
Cohabitation with the elderly	Experienced	2.96	0.369	.260	2.71	-0.247	3.17	0.573	3.01	0.081	16.41	1.504	.134	10.59	1.002	5.83	1.420	2.96	2.132	.034
	Not experienced	2.95		2.72	(.805)	3.14	(.567)	3.01	(.935)	16.03				10.41	(.317)	5.63	(.156)	2.87		
Contact Frequency with the elderly	More than once a week	3.01	0.419	.658	2.72	0.132	3.23	0.692	3.08	0.937	16.08	0.450	.638	10.25	1.485	5.83	0.135	2.98	0.932	.395
	More than once a month	2.99		2.72	(.877)	3.19	(.501)	3.05	(.393)	16.42				10.69	(.228)	5.73	(.874)	2.96		
	Less than 5 times a year	2.96		2.75		3.15		3.01		16.26				10.48		5.78		2.91		

Table 2. Images, Knowledge and Stereotypes plus Perception toward the Elderly Depending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ontinued)

Characteristics	Categories	Knowledge of the elderly										Stereotypes								
		Images of the elderly					Total					Family-Social		Physical-Social						
		Mean	F or t (p)	Mean	F or t (p)	Mean	F or t (p)	Mean	F or t (p)	Mean	F or t (p)	Mean	F or t (p)	Mean	F or t (p)	Mean	F or t (p)			
Experience of volunteer work	Yes	2.99	1.433	.153	2.76	1.632	3.19	1.099	3.03	0.454	16.42	1.855	.064	10.59	1.452	5.83	1.454	2.96	2.370	.018
	No	2.93			2.67	(.104)	3.13	(.273)	3.01	(.651)	15.96			10.34	(.148)	5.62	(.147)	2.86		
Interest in the elderly issues	Not interested	2.89	1.697	.185	2.63	1.468	3.10	0.837	2.96	0.881	15.68 ^b	4.161	.016	10.05 ^b	3.131	5.63	3.811	2.76 ^b	8.864	.000
	Somewhat interested	2.96			2.71	(.232)	3.14	(.434)	3.03	(.415)	16.02	a/b		10.52 ^a	(.045)	5.51 ^b	(.023)	2.89 ^a	a/b	
Wish for Cohabitation	Interested	2.99			2.76		3.19		3.03		16.56 ^a			10.64 ^a	a/b	5.92 ^a	a/b	2.99 ^a		
	Yes	2.99	0.697	.487	2.75	0.676	3.19	0.575	3.03	0.244	15.80	-1.854	.066	10.13	-2.426	5.68	-0.414	2.97	1.434	.152
Use of Supporting Facilities for the elderly	No	2.95			2.71	(.500)	3.15	(.541)	3.01	(.794)	16.35			10.61	(.016)	5.74	(.679)	2.90		
	Certainly use	3.02	0.277	.893	2.94	1.058	3.05	0.386	3.07	0.437	14.58 ^b	3.413	.009	10.00	0.871	4.58 ^b	5.705	2.92	0.571	.684
Facilities for the elderly	Occasionally use	2.93			2.69	(.377)	3.13	(.819)	2.98	(.782)	15.74 ^a	a/b		10.26	(.481)	5.49 ^a	(.000)	2.85		
	Only in sick	2.95			2.70		3.16		2.99		16.44 ^a			10.51		5.93 ^a	a/b	2.90		
Most important things for retirement living	On the condition	2.97			2.70		3.17		3.04		16.41 ^a			10.55		5.87 ^a		2.94		
	Never use	2.97			2.70		3.22		2.99		16.12 ^a			10.76		5.36 ^a		2.90		
Human relationship	Health	2.95	0.240	.868	2.68	0.855	3.17	0.098	3.00	0.305	16.14	0.538	.657	10.49	0.755	5.66	0.389	2.92	0.977	.404
	Money	2.98			2.75	(.465)	3.15	(.961)	3.06	(.822)	16.51			10.68	(.520)	5.83	(.761)	2.91		
Religious and social activities	Human relationship	2.98			2.76		3.15		3.03		16.24			10.44		5.80		2.93		
	Religious and social activities	2.94			2.63		3.20		3.01		15.80			10.00		5.80		2.75		

Table 3. Correlation among Images, Knowledge and Stereotypes plus Perception toward the Elderly

Variable	Images	Knowledge	Stereotypes
Images	1	.110	.391
r(p)		(.035)	(.000)
Knowledge		1	.273
r(p)			(.000)
Stereotypes			1
r(p)			

약 60%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An, 2004; Kim, 2006; Lee & Kang, 2006; Park, 2004). 그러나 2011년 통계청 조사 결과,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65세 이상 노인이 68.6%로(Statistics Korea, 2011) 조사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노인관련 봉사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60.3%로 Han (2010)의 연구에서 19.2%, Kim 등(2002)은 51.2%, Lee와 Kang (2006)은 47.4% 등으로 선행연구들보다 높았는데 이는 연구대상자에 따른 차이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본 연구에서 미래 자신의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46%가 건강이라고 응답한 결과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공적 노후의 기준 중 하나가 주관적 건강 상태라고 한 것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Lee & Moon, 2012; Park, & Yi, 2002). 세대 간 차이를 떠나 건강은 노후를 안정되고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는 주요 요소로 생각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와 비간호학과 학생의 노인 이미지, 지식과 고정관념 및 인식을 비교하는 데 있어 일반적 특성에서 차이가 확인된 변수들을 통제하여 학과 간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하였다.

노인 이미지는 영역별로 신체적 이미지가 가장 부정적이었으며, 심리적 이미지가 가장 긍정적이었다. 선행연구에서 20, 30대를 대상으로 한 Park (2004)의 연구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Chong & Kim, 2007)에서도 신체적 이미지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을 비교한 Sin (2011)의 연구에서 양국 대학생 모두 신체적 이미지가 가장 부정적이었으며, 심리적 이미지가 가장 긍정적인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노인에 대한 이미지의 총 점수는 학과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간호학과 학생들이 비간호학과 학생들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노인 이미지에 포함된 의미와 유사한 내용의

태도를 조사한 Kim (2007)의 연구에서는 각 영역에서 중립적인 성향을 포함하여 모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학과별로 비교한 선행연구들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은 비간호학과 학생들에 비해 태도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oyd & Scarborough, 2012; Kim, et al., 2002). 노인 이미지 중 신체적 이미지를 포함하여 다른 하부 영역에서도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노인과 접촉하는 동안 갖게 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경험들이 노인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Gonzales, Morrow-Howell, & Gilbert, 2010)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간호학과 학생들은 실습 및 교과 과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노인을 경험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로서의 노인이기 때문에 건강한 노인보다 상대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경우를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4년에 이르는 교육 과정 속에서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경험들을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제공할 경험은 Kim (2007)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단기간의 교과목 수강이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음을 감안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을 측정한 결과, 지식의 전체 총점은 16.22(±2.356)점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간호사 평균(12.60±2.84점)과 간호 학생(12.00±2.8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Song, 2004). 학과에 따라 비교한 결과, 전체 총점은 차이가 없었으며, 영역별로 분석하였을 때, 신체·생리적 영역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이 비간호학과 학생들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t=3.914, p=.049$). 본 연구결과는 일부 문항의 차이는 있으나 학과별 학생들의 노인관련 지식을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은

신체적 영역에서 비간호학과 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Boyd & Scarborough, 2012; Kim, 1995; Kim et al., 2002; Lee & Kang, 2006), Song (2004)의 연구에서도 간호사와 간호 학생의 신체적 영역에서의 정답률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게 나온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이 비간호학과 학생들에 비해 신체·생리적 영역의 지식이 높은 것은 학과 특성상 학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전체 점수가 가족·사회적 영역에서 학과 간 비교에서 차이가 없었던 이유는 통신기기의 발달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포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간호학과 학생들 중 노인 간호를 선호하는 학생일수록 노인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Lee & Kang, 2006),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비교해 본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건강 관련 지식을 포함한 노인의 특성에 대한 지식이 교육군에서 더 점수가 높아 교육을 통한 노인 관련 지식 제공이 노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6). 따라서 간호학과 학생들이 가족·사회적 측면에서 비간호학과 학생들에 비해 점수가 낮은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 관련 교과과정에 보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인식 정도를 알아본 결과, 전체 평균은 2.92(±0.394)점이고, 간호학과 2.91(±0.028)점, 비간호학과 2.93(±0.03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Park (2004)의 연구에서 평균 2.85점, Sin (2011)의 연구에서 2.82점으로 측정된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고정관념 및 인식은 중간기준 척도인 3에 미치지 않아 긍정적인 결과로 보기는 힘들다. 선행연구에서도 비간호학과 학생들이나 일반인에 비해 간호학과 학생 또는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에 해당하는 인식은 부정적이거나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Boyd & Scarborough, 2012; Jansen & Morse, 2004; Kim et al., 2002), 이는 대상자들이 세대 간의 단절로 인해 노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기회가 거의 없고, 사회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노인은 사회가 부양해야 할 존재로 보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간호학과 학생들은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노화를 경험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노화 과정을 경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노인 이미지, 지식과 고정관념 및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는 타종교에 비해 신체적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노인에 대한 신체·생리적 영역의 지식은 여성이고 학년이 높을수록 지식이 높았고, 노인에 대해 관심이 있을 때 가족·사회적 영역의 지식이 높았다. 또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인식이 긍정적인 경우는 학년이 높고, 동거 경험이 있으며, 노인 관련 봉사 경험과 노인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봉사 경험이 많은 대학생들은 노인과의 노화 과정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Van Dussen & Weaver, 2009). 따라서 동거 경험과 봉사 경험 유무에 따라 노인에 대한 일부 인식은 변화할 수 있으나 이미지나 지식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동거 또는 봉사 경험을 통해 만나는 노인으로부터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는지가 긍정적인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선행연구에서 조사되었던 노인과 만나는 빈도 등과 같이 다양한 노인과의 경험이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 등에 주는 영향도 향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인 이미지, 지식과 고정관념 및 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세 변수가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일부 선행연구에서 학과별로 비교한 결과 노인에 관한 지식과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나(Kim et al., 2002)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Lee & Kang, 2006; Song, 2004)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노인 이미지와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인식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준 연구(Park, 2004; Lee & Kang, 2006)와 결과가 동일하였다. 일부 연구에서 결과가 동일하지 않은 것은 도구의 차이이거나 연구 대상자의 차이일 가능성이 높아 통일된 도구로 다양한 특성의 대상자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적으로 간호학과와 비간호학과 학생들을 비교해 본 결과, 노인에 대한 지식은 간호학과 학생이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노인 이미지와 고정관념 및 인식은 비간호학과 학생보다 약간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노인과 접촉하는 횟수와 만나는 동안 느끼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경험들이 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Gonzales, Morrow-Howell, & Gilbert, 2010)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간호학과 학생들은 이론과 실습을 통해 건강한 노인보다는 건강하지 않은 노인을 많이 경험하는 것과 관련하여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기 위한 방법으로써 선행연구의 노인유사체험 등의 체험 프로그램과 건강한 노화 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노인유사체험이나 건강한 노인과의 만나는 경험을 통해 노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상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어 노인에 대한 일반적 또는 돌봄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들(Boyd & Scarborough, 2012; Choi & Park, 2009; Han, 2010; Kim, 2009; Yang, 2013; Yu, Kim & Lee, 2004)을 근거로 하여 교육 과정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포함할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존의 단기적이며, 이론에 치중한 교과 과정으로는 간호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에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Williams, Anderson, & Day, 2007) 지속적인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까운 미래에 개인적·사회적으로 노인을 부양할 세대가 될 대학생의 노인 이미지, 지식과 고정관념 및 인식을 통해 노인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특히 향후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로 일하게 될 간호학과 학생들과 비간호학과 학생들의 차이를 비교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간호학과 대학생들이 비간호학과에 비해서 노인에 대한 지식 중 신체·생리적 영역만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그 외의 가족·사회적 영역의 지식, 노인 이미지와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인식은 학과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다소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노인 이미지, 지식과 고정관념 및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노인에 대한 관심과 노인 대상 봉사 경험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학과와 노인 관련 교육 과정을 통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

- An, K. S. (2004). Perception of local small and Medium Cities University students toward the elderly. *Social Science Reseaech*, 20(1), 223-248.
- Boyd, A., & Scarborough, K. (2012). *College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and beliefs about older adults*. DISCOVERY: Georgia State Honors College Undergraduate Research Journal, 1(1), article 10. <http://scholarworks.gsu.edu/discovery/vol1/iss1/10>
- Chong, Y. S., & Kim, I. J. (2007). Comparisons of the perception of the aged rated by children, adolescent, and the aged.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20(2), 171-184.
- Choi, S. W., & Park, M. H. (2009). Effect of senior simulation on geriatric unit nurses' attitude and job satisfaction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9(2), 513-527.
- Fitzgerald, J. T., Wray, L. A., Halter, J. B., Williams, B. C., & Supiano, M. A. (2003). Relating medical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and experience to an interest in geriatric medicine. *The Gerontologist*, 43(6), 849-855. <http://dx.doi.org/10.1093/geront/43.6.849>
- Gomez, G. E., Young, E. A., & Gomez, E. A. (1991). Attitude toward the elderly, fear of death, and work preference of baccalaureate

- nursing students. *Gerontology & Geriatrics Education*, 11(4), 45-56. DOI:10.1300/J021v11n04_04
- Gonzales, E., Morrow-Howell, N., & Gilbert, P. (2010). Changing medical students'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Gerontology & Geriatrics Education*, 31(3), 220-234. <http://dx.doi.org/10.1080/02701960.2010.503128>
- Han, H. K. (2010). The development of an aging simul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and the effects on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Kore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ducation*, 13, 59-78.
- Jansen, D. A., & Morse, W. A. (2004). Positively influencing student nurse attitudes toward caring for elders. *Gerontology & Geriatrics Education*, 25(2), 1-14. DOI:10.1300/J021v25n02_01.
- Kim, J. H. (2007). Short-term effects of gerontological nursing lecture course on attitudes toward elders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Gerontol Nursing*, 10(2), 173-181.
- Kim, K. S. (1995). The Facts - on - Aging Quiz of University.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9(1), 59-70.
- Kim, M. J. (2006). *Change in students' attitudes knowledge toward older people : effect of the college educational progr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 Kim, S. Y., Yang, K. M., Oh, H. E., & Kim, J. S. (2002). Nursing and social welfar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2(3), 21-36.
- Lee, E. J., & Kang, I. W. (2006). Student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 related to the elderly.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20(2), 183-194.
- Lee, I. S. (2000). Perception of rural area college students on the aged.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2), 123-135.
- Lee, S. H. & Moon, M. J. (2012). The relationship of life satisfaction, health behaviors and successful aging in the elderly.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26(2), 204-214. <http://dx.doi.org/10.5932/JKPHN.2012.26.2.204>
- Lee, Y. G., Jung, K. H., Oh, Y. H., & Nam, H. J. (2012). *A study of local-level policy responses to population aging*.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Palmore, E. B. (1998). *The Facts on Aging Quiz* (2nd ed). New York: Springer Pul Co.
- Park, H. J. (2004). *Cognition of the elderly in aging society : Intended for an adult in twenties and thir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Park, K. R., & Yi, Y. S. (2002). A study on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in later lif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2(3), 53-66.
- Sanders, G. F., Montgomery, J. E., Pittman, J. F., & Balkwell, C. (1984).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1), 59-70.
- Sin, H. N. (2011). A study on Korean ·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toward the elderly. *Japanese Studies Journal*, 26, 58-85.
- Song, E. J. (2004). *Nurses and nursing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Statistics Korea. (2011). *Population Projections for Korea : 2010~2060 (Based on the 2010 Census)*. Daejeon. Retrieved September 3, 2013. from http://kosis.kr/ups/ups_01List01.jsp?grp_no=1002&pubcode=PJ&type=F

- Sung, K. T. (1995). Korean's willingness to practice filial piety and generational gap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5(1), 1-14.
- Van Dussen, D. J., & Weaver, R. R. (2009). Undergraduate students' perceptions and behaviors related to the aged and to aging processes. *Educational Gerontology*, 35(4), 342-357. DOI : 10.1080/03601270802612255.
- Williams, B., Anderson, M. C., & Day, R. (2007).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knowledge of and attitudes toward aging: comparison of context-based learning and a traditional program. *Th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6(3), 115-120.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 *2013 World Health Statistics(WHS)*. Retrieved August 29, 2013, from http://www.who.int/gho/publications/world_health_statistics/WHS2013_IndicatorCompendium
- Yang, J. M. (2013). *Influence of a senior simulation experience on new nurses' attitude and nursing practice toward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Yu, S. J., Kim, S. M., & Lee, Y. J. (2004). The Effect of Senior Simulation on Nurse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6), 974-982.

University Students' Images, Knowledge, and Stereotypes plus Perceptions about the Elderly

Kwon, Myung Soon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Noh, Ghee-Young (Professor, School of Communication, Hallym University)

Jang, Ji Hye (Graduate School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images, knowledge, and stereotypes plus perceptions about the elderly between students in nursing class and those in other classes and to determine the correlation among variable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00 students, 200 from nursing class and 200 from other classes (premedical students were excluded) from one university. **Result:** Images the elderly of all participants showed an average score of $2.96(\pm 0.376)$, total average score of knowledge about the elderly was $16.22(\pm 2.356)$, and average score for stereotypes plus perception was $2.92(\pm 0.394)$. Comparison between students in nursing class and those in the other classes showed that students in the nursing class had deeper knowledge regarding physical and physiological fields of the elderly, however they had comparatively negative cognition in the images and stereotypes plus perceptions about the elderly. In addition interest in the elderly and volunteer experience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images and stereotypes plus perceptions. Images, knowledge, and stereotypes plus perceptions about the elderly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Conclusion:** In development of curriculum related to the elderly in nursing class, development of specific and diverse approaches that will raise positive awareness of the elderly is necessary.

Key words : Aged, Images, Knowledge, Perception, Nursing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KRF)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NRF-2012S1A3A2033480).*